

20대 회사원 구속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 남부 경찰서는 24일 여중고생·여회사원만을 골라 아파트단지 안에서 4개월 동안 36차례에 걸쳐 폭행을 해온 김성수(24·회사원·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주공아파트 158동 503호)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6시께 구월주공아파트 168동 2층 계단에서 집으로 가던 회사원 박아무개(19·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4천원을 빼앗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아파트단지 안에서 여중고생·여회사원들을 위협, 폭행해 왔다는 것이다.